

광주지역 중학교 74% “학폭, 학생부 기재했다”

습 안서는 시교육청... 일선학교 보류 지시 무시

학교장들 “실패 알면서도 보류 강행... 비겁하다”

광주시교육청의 보류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해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113개교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64곳, 고등학교 33곳이었다.

특히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학교의 경우 전체 87개 학교 중 73.6%인 64개교가 기재했다. 나머지 23개교 중 상당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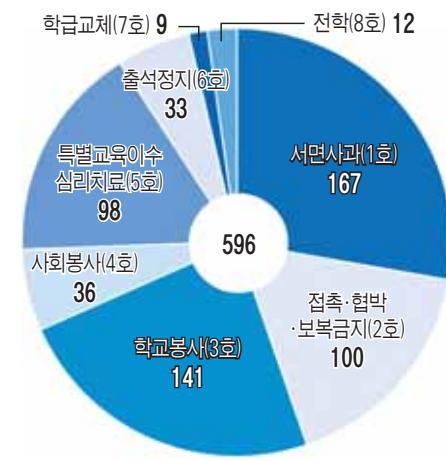
고등학교는 전체 67개교 중 33곳(49.3%)이 학생부에 기재했다. 사회진출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하면 고등학교도 대부분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광주지역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광주시교육청 지침과는 달리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광주지역 교장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지침을 내려보낸다”며 광주시교육청의 학생부 기재 여부를 반박하며 권한이므로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기재보류 방침을 거부하고, 교육부 지시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학생부 기재보류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학교폭력 기재는

■ 광주 일선 학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인원 현황 (2013년 8월 말까지)



(자료:민주당 박해자 의원)

이중처벌이자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교장들은 “일선 학교에 교육부의 기재 공문과 교육청의 기재 보류 공문을 동시에 내려보내는 건 낡은식”이라며 “학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진보의 틀에 갇혀

자신의 할 말만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지역 중학교 한 교장은 “교육감의 학교폭력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잘 안다”며 “하지만 교육감이 교육부와 담판을 지어 문제를 해결해 야지 학교장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조치내용별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까지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596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한 해동안 1227명이었다. 이 중 중학교가 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79명, 초등학교 17명이었다.

조치 내용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서면사과(1호)가 1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봉사(3호) 141명, 전속·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100명,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5호) 98명, 사회봉사(4호) 36명, 출석정지(5호) 33명, 전학(8호) 12명, 학급교체(7호) 9명 순이었다.

박해자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학생부 기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상당교실과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는 등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올 재정신청 인용률

광주고법 전국 최고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올해 상반기에 717건의 재정신청을 처리해 21건(2.93%)을 공소제기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는 8230건 가운데 79건만 공소제기 결정돼 0.96%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서울고법(0.91%), 부산고법(0.55%), 대구고법(0.41%)은 모두 0점대였으며 대전고법은 400건 가운데 한 건도 인용하지 않았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규정이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복구 8경 추천해주세요”

광주시 복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4일 복구 중흥동 광주역 1층 대합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구 8경’ 선정에 관한 후보지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구는 다음달 중순 후보지 16곳 중 8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보고서

일제가 강제기에 9살 여아는 물론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가 탄광과 공장에서 중노동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노동 탓에 일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귀환해서도 심각한 후유증은 물론 중증의 정신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039건(피해자 1018명)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제, 9살 여아도 끌고가 강제노역 시켰다”

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039건(피해자 1018명)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일제 강제기에 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였으며 공장으로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로 한정하면 평균 연령이 13.2세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노동 가능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일본법도 어기는 ‘만행’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919년 공업부문 협약 등에 맞춰 14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을 제한하는 공장법을 제정했으나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여성노무자의 강제동원을 직종별로는 공장동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광(143

건, 농장(121건), 토건작업장(17건) 순이었다. 여성 노무자들은 탄광·토건작업장에서 석탄 나르기 등의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의 출신지는 94.71%가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이른바 삼남 지역이었고, 이 가운데 50.76%가 일본으로, 31%가 한반도 내 작업장으로 동원됐다.

9살 때 경북 예천에서 인천의 한 방직공장으로 끌려갔던 김모(80) 할머니는 작업 중 풀었다는 이유로 감독관이 눈을 찔러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8분 / 해질 17시 58분 / 달출 15시 34분 / 달몰 02시 30분

가을 비

일부지역 비 내리고 찬바람 부는 곳 있겠다.

지역	비	기온
광주	비	14/22℃
목포	비	15/20℃
여수	비	17/22℃
나주	비	13/22℃
완도	비	16/23℃
구례	비	12/23℃
강진	비	14/22℃
해남	비	15/22℃
장흥	비	14/23℃
순천	비	12/22℃
영광	비	13/21℃
진도	비	16/21℃
전주	비	13/20℃
군산	비	13/18℃
남원	비	11/19℃
옥산도	비	17/19℃

식중독지수: 1.0~2.5m (경고) / 지외선지수: 보통 / 뇌졸중지수: 보통

◇주간날씨

날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1/17	8/19	9/20	10/22	11/20	12/20

검찰총장 후보 10여명 천거

전남 출신 소병철·김현웅도

추천위, 본격 심사 착수

‘혼외자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검찰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천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천위는 15일까지 총장 후보를 추천받은 뒤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 들어간다. 추천위는 지난 8일부터 1주일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고 있다.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천거된 인사에는 사법연수원 15기와 16기인 현직 고검장급 고위간부가 전원 포함됐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기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기(55·서울) 대검 차장

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이 후보군에 들어 있다.

16기 고검장급인 국민수(50·대전) 법무부 차관, 임정혁(57·서울) 서울고검장, 조영근(55·경북) 서울중앙지검장, 이득홍(51·대구) 대구고검장, 김현웅(54·전남) 부산고검장 등 5명도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로는 10기의 김태현(58·대구) 전 법무연수원장과 11기의 박상욱(57·경기) 전 서울북부지검장, 13기인 박용석(58·경북) 전 대검 차장과 차동민(54·경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총장과 같은 14기에서는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과 노환근(56·경북) 전 법무연수원장이 천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3 여수 시민의 날

제15회 여수시민체육대회

2013. 10. 15.(화) ~ 16(수)

● 식전행사, 기념식 및 체육대회 개막식 10. 15(화) 오전 10시 / 진남경기장

● 제15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육상 등 11개 종목) 10. 15(화)~16(수) / 진남경기장 및 종목 별 경기장

● 제5회 읍면동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등 10. 15(화) 낮 12시 / 진남체육공원 야외무대

* 시민 대중교통 이용 협조

● 10. 15(화) / 여수시민대상

● 빅오쇼 및 아쿠아리움 50% 할인

● 향일암 무료 입장

● 10. 15(화) 밤 8시40분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2013 여수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